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12. 10.(화) 11:00 < 12.11.(수) 조간 > 배포 2024. 12. 10.(화)

미 신(新) 행정부 통상정책 대응, 통상전문가들과 심층 논의

- 미 신행정부 출범 대비 통상교섭본부-통상전문가 간담회

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업부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0일(화) 17시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주요 통상·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(新)행정부 통상정책 대응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금번 회의는 미 신(新) 행정부 출범이 1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부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, 통상교섭본부 주요 간부들과 통상전문가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응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참석한 통상전문가들은 미 신(新)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지난 1기 대비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, 정부의 차분하고도 치밀한 대응을 주문하였다.

발제를 맡은 중앙대 이승주 교수는,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노선이 미국 내 주류로 자리잡으면서, 대외정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며, 보편관세 실행 및 다자통상질서 재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. 이 교수는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기 대비 강화된 미 신행정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래적 접근(transactional approach)에 잘 대비할 것을 조언하였다.

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“정부는 미 신(新) 행정부 내각 구성과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이슈별로 대응 방안을 수립 중”이라 언급하고 “한미 관계는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첨단기술·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계된 상황인 바 이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”고 밝혔다. 향후 정부는 최근 국내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미 신(新) 행정부 출범 대응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영만 (044-203-5620)
		담당자	사무관	송승희 (044-203-562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통상교섭본부-통상전문가 간담회 개요**

□ 회의 개요

○ **일시/장소** : 12.10(화), 17:00~18:30, 무역안보관리원 16층 회의실

○ **참석** : **정부**(통상교섭본부장, 통상교섭본부 간부), **통상·국제관계 전문가**

- **(정부)** 통상교섭본부장, 통상차관보, 통상정책국장, 신통상전략지원관, FTA교섭관 등

- **(전문가)** 학계 · 연구계 등 12명

< 전문가 참석자 명단(가나다 順) >

김정숙	세종대 경제학과 교수	**조성대**	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
김태황	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	**조수정**	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박지형	서울대 교수(국제통상학회장)	**최병일**	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
서정민	무역안보관리원장	**최성호**	경기대 경영대학원 교수
안세영	서강대학교 명예교수	**표인수**	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변호사
이승주	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	**허 윤**	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

□ 회의 안건

○ **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국의 대외정책**

□ 진행 순서

※ 언론공개 범위 : 모두발언까지, 사회 : 서강대 허윤 교수

시 간	주 요 내 용	비 고
17:00-17:02 ('2)	• 개 회	허윤 교수
17:02-17:05 ('3)	• 모두발언	통상교섭본부장
17:05-17:30 ('25)	• 안건 발표	이승주 교수
17:30-18:28 ('58)	• 자유 토의	참석자 전원
18:28-18:30 ('2)	• 맺음말	본부장·허윤 교수